

대구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초연결도시 대구’ 미래상 제시… 10+2 중심지 체제 개편

모빌리티 등 신산업 공간 마련
군위군에 2개 중심지 신설
행정절차 거쳐 내년 초 확정

대구시는 2040년의 미래변화를 대응해 도시공간구조와 발전 전략을 담은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최근 군위군 편입에 따라 전국 최대의 광역시로 지리 잡았으며 T K신공항 건설, K2 및 군부대를 포함한 후적지 사업과 미래산업 추진 등 도시 공간의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비롯한 선도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 204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핵심사업의 연속성과 근거를 마련하고 ‘5극 3특’과 같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지역균형성장 국가정책에 대해 리더도시로서 대응하기 위해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대구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최고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2040년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의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참여단을 운영해 ‘청년이 그린 미래 대구의 모습’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는 ‘글로벌 허브, 미래산업 혁신,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미래상, 공간구조, 인구·개발가용지 등의 구상과 함께 9대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2040년 대구의 미래상은 ‘세계·미래·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로 제시하고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3대 목표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로 설정했다.

공간구조는 기존 10개(도심, 동대구, 서대구, 안심, 성서, 칠곡, 뉴k2, 수성, 월배, 현풍) 중심지 체계에서 군위

군에 2개의 중심지를 신설한 ‘10+2 중심지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방문객 등 생활인구를 품은 320만의 메가시티로 설정해 대경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개발 가용지는 120㎢로 설정해 대구 핵심사업 추진 등 미래 대구의 공간 혁신에 대비했다.

아울러 미래상의 목표에 맞게 글로벌·광역·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는 ‘관문도시’, 신산업 엔진·도심 Big-Change·New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활력도시’, 스마트생활권·K-culture 중심도시·대구 Cool-Line을 구축하는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대구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미래 신산업 성장의 공간적 기틀 마련, 기업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안전대진단’ 실시

광주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025년 광주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

공공시설물 142개소와 전통신장 및 다중이용시설 126개소, 스포츠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92개소 등 총 360개소가 대상이다.

또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방범비상벨 3226개소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통신장과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화재·시설 안전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부산시

시내버스 영업소 관리 강화

부산시는 내달부터 시내버스 영업소 전역에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과 대리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최근 부산지역 시내버스 전체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됐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북극항로추진팀’ 신설

환경해지역본부장 직속 조직
정부 북극항로 정책 적극 대응

경북도가 정부의 북극항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했다.

‘북극항로추진팀’은 경북도 동부청사의 환경해지역본부장 직속조직으로 편성돼 경북도 차원의 북극항로 개발 정책 발굴과 영일만항의 북방물류 거점항만 육성 지원, 극지·항만과 관련된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구축해 전략 과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새 정부의 경북 7대 광역공약에 영일만항 확충 지원을 포함시킨 데 이어 내년 국가투자예산으로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사업에 1112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285억원, 영



일만항 소형선 부두 축조에 132억원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북극항로 특별법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영일만항의 권역별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북극항로 거점항구로 영일만항 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물류산업의 중요한 전략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며 “영일만항이 지역의 철강, 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주도록 북극항로추진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수운잡방·음식디미방’ 유네스코 후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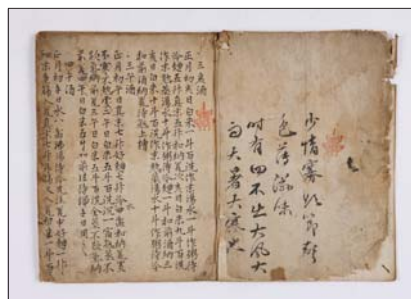
안동시 내년 6월 최종 등재 결정

경북 안동시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우리나라 전통 조리 지식을 담은 기록물이다. ‘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 조리서로,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음식디미방’은 양반가 여성이 남긴 가장 온전한 형태 한글 조리서로, 여성의 지식 전승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이번 국내 후보 선정으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 신청서가 제출됐다.

2026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MOWCAP)에서 최



전통 음식 조리서 ‘수운잡방’

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 시 관련 분야 연구 및 문화 교류 확대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등재 추진은 안동이 보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국내외 협력을 통해 안동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대구교육청, 5세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현

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무상 지원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첫걸음이다.

대구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 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 과정보비 5만 원이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 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 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전남대병원, ‘월드 베스트 전문병원’ 선정

화순전남대병원 암 분야 세계 140위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 베스트 전문병원’에 종양학·내분비대사내과·소아청소년과가 선정됐다.

뉴스위크는 30여개 국 의료전문가 4만여 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의료기관 인증 데이터, 환자 자기 평가도구(PROMs) 실행 여부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의 암(종양학·oncology) 치료 분야는 세계 140위에 올랐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단 2곳만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세계 3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병원은 14곳 뿐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중 8위로 비수도권 병원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117위, 소아청소년과는 215위에 오르는 등 등 5년 연속 세계 최고 전문 병원에 선정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양산시

개인택시 12대 신규면허 발급

경남 양산시는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12대의 신규면허를 발급한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증차로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고시한 증차 총 36대가운데 양산시 몫은 12대다. 공급 대수는 시의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비율제로 배분되며, 운전경력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10월10일까지 공고를 거쳐 10월13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1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